

# 통일교육시범학교와 일반학교 통일교육 비교 연구\*

정지윤(전남대학교)\*\* · 김재기(전남대학교)\*\*\*

## 논문 요약

학교통일교육은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심어주고, 통일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 과정이다. 학교통일교육은 독립적인 교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에 일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범교과적인 특징이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한국의 주역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학교 통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경기도 파주시 지역에 위치한 통일교육시범학교(experimental group)와 비시범학교(control group) 학생들의 통일 의식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비시범학교에 비해 현재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고, 통일교육의 방식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으며, 통일교육이 북한 및 통일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보다 비시범학교 학생들이 그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비시범학교 학생들에 비해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더 유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비시범학교에 비해 통일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학교통일교육, 통일의식, 통일교육시범학교, 통일교육 비시범학교

\*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 I. 서론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sup>1)</sup>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기반 구축이 순환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문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국가적인 중대 정책 중에 하나이다. 민주적 소양을 갖춘 시민이라면 통일에 대해 이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sup>2)</sup> 이를 통해 통일문제에 무관심했던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통일 분위기 확산과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의식의 변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통일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 체제에서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기란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도덕 과목에 등장하는 북한 및 통일 관련 단원에 대한 수업시수는 1년 중 2시간에 불과하고, 중학교 2학년 사회 과목에서는 2시간, 중학교 3학년 사회 과목에서는 4시간, 중학교 3학년 역사과목에서도 1시간으로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양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과 관련된 학습 교재나 교사들의 전문성 등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통일교육시범학교와 비시범학교 중학생들의 통일 의식을 조사하여 학교통일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통일교육시범학교와 비시범학교 중학생

1)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13, p. 94.

2) 김재기, "지역사회 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17집 3호, 2012, p. 173.

들의 통일 의식을 설문조사하여 그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비교 대상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2개의 중학교로 금릉중학교는 통일교육 시범학교(experimental group)이고 700m거리인 금촌중학교는 일반학교(control group)이다. 통일교육시범학교는 기존 교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비시범학교에 비해 통일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시범학교와 비시범학교 학생들의 통일교육이 양적·질적으로 다를 것이고 이에 따른 두 학교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다.

## II. 중학교에서 통일교육과 통일교육시범학교

통일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교육 지침서를 개발하여 학교와 사회통일단체에 보급하고 있다.<sup>3)</sup> 통일교육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초·중고 학교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 통일운동 단체가 주도하는 통일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심어주고, 통일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실천의지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 통일교육은 독립적인 교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 속에 포함되어 정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광기(2007)는 통일교육을 ‘통일에 관련된 교육’과 ‘통일을 위한 교육’, 그리고 ‘통일이후의 문제들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통일에 관련된 교육은 통일의 당위성, 남북관계, 한반도 국제정세, 대북정책

등 주로 통일을 위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교육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당면할 과제와 사회통합을 비롯한 정치통합, 제도통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4)</sup>

중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통일과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분단의 원인과 과정, 통일의 필요성,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의 중요성,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이질성 극복,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통일준비 노력 등에 중점을 둔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북한의 이중성, 북한 사회에 특징과 작동원리, 체제선전 주장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 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과 가치관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sup>5)</sup>

중학교 도덕교과에서는 [Ⅲ.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3.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4.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단원에서 북한·통일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덕교과에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통일이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임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분단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각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sup>6)</sup>

중학교 사회교과에서는 사회2 [X.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 1.북한의 개방 지역과 접경 지역 2.국토 통일과 세계 평화], 사회3 [X.통일 한국의 미래 1.북한 개방 지역의 지리적 특성 2.백두산과 비무장 지대의 의미와 가치 3.국토 통일과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4.통일 후 바람직한 국토 공간의 모습] 단원에서 통일교육을 진행한다.<sup>7)</sup>

4) 박광기, “새로운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성 제고 : 통일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시민교육연구』 제39권 3호, 2007, p. 102.

5)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13, p. 15.

6) 통일부 통일교육원, 위의 책, p. 17~18.

7) 통일부 통일교육원, 위의 책, p. 20~21.

3) 김재기, “대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시민윤리학회』 제26집 2호, 2013, p. 77.

중학교 역사교과에서는 역사 [IV.대한민국의 발전 3.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단원이 북한·통일 관련 단원이다. 역사 교과서의 해당 단원에서는 사회 교과 학습내용과 지도방향을 참고하여 1945년 광복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북한체제의 실상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인식시켜 애국심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들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발전과 번영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며, 이는 앞으로 통일과정에서도 견지해야 할 기본적 가치임을 깨닫게 한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형성·전개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한반도 분단을 국제정세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민족 내부적 요인과의 관련성도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sup>8)</sup>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도덕, 사회, 역사 과목별로 통일교육 단원과 그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학교 교과과정에서의 통일교육 단원과 내용

과 목	단 원	내 용
도덕	III.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3.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4.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남북 분단의 역사와 현실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 생활 -남북한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체제 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평화적 교류와 협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도덕적으로 성찰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 발전적인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노력
사회2	X. 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 1. 북한의 개방 지역과 접경 지역 2. 국토 통일과 세계 평화	-동아시아의 지리적 위치를 살피고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통일의 필요성 인식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미래의 한국

8) 통일부 통일교육원, 위의 책, p.22~23.

사회3	X. 통일 한국의 미래 1.북한 개방 지역의 지리적 특성 2.백두산과 비무장 지대의 의미와 가치 3.국토 통일과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4.통일 후 바람직한 국토 공간의 모습	-북한의 개방 지역, 백두산, 비무장지대(DMZ)가 갖는 지리적 의미와 특성 -동아시아에서 우리 국토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토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
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3.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1970년대 이후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음을 파악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 북한의 실상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

일반 중학교에서 도덕과, 사회, 역사교과목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면 통일교육시범학교는 이러한 교과목이외에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일교육시범학교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서 지정하며, 시범실시 운영기간은 2년으로, 통일교육 모델을 발굴·보급하고 통일교육의 거점학교로 육성함으로써 학교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 및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초·중·고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통일교육시범학교는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4개교로 총 56개교이고, 2013년 통일교육시범학교는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3개교로 총 64개교이다. 시범학교 지원 예산은 통일부 세출예산과 국고보조금에 의해 72,000만원이 지원되며, 단위학교당 지원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증감하여 지원하고 있다.<sup>9)</sup>

통일부에서는 이들 학교에 교육방향, 교사연수,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되면

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타 기관 요청 연구학교 신규 지정운영 계획』, 2012.

학생들의 체험적 통일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받고, 시범학교에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해당 학교 교사에 대한 통일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교과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분단현장 견학, 통일 미술제, 통일 글짓기, 통일 웅변대회, 통일 연극제 등 전문화된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속 교사들로 하여금 통일교육 연구반 등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10)</sup>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2013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의하면 통일미래 세대의 통일의식 및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중요한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1)</sup> 10대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관심의 제고를 통해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통일교육시범학교와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 III. 통일교육시범학교와 일반학교 간 통일교육 비교분석

#### 1. 연구방법 및 내용

이 조사는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남·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3월에 실시하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이유는 현재 통일교육시범학교는 2년에 1번씩 그 대상 학교가 바뀌므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2년 동안 통일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을 파악해보기 위해서이다. 조사대상 학교는 남녀공학의 공립 중학교로 총 2개

학교이다. 이 중 통일교육시범학교는 2012년과 2013년 2년에 걸쳐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선정·운영된 경기도 파주시 금릉중학교이고, 비시범학교 역시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금촌중학교로 금릉중학교와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 이외에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다른 요소들은 최대한 없애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두 학교를 직접 방문해 3학년 부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들에게 본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한 다음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결과 총 711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711부 모두 회수하였으나, 무성의한 답변을 한 응답자를 제외한 705부만 통계처리 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두 학교 학생들이 통일교육시범학교 유무에 따른 통일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과 비시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교육에 대한 조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조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

부문	조사내용	문항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10문항)	-북한·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	Q_1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방식	Q_2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Q_3
	-현재 전반적인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	Q_4
	-현재 학교통일교육(학습자료, 수업방법, 수업시간,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Q_5
	-현재 학교통일교육의 효과	Q_6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Q_7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통일교육의 방식	Q_8
	-다양한 매체(TV, SNS,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통일교육의 효과	Q_9
	-학교 외의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Q_10

10) 박동주, "고등학교 통일교육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20~21.

1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년 통일교육 기본계획, p. 14.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V.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고, 통일교육시범학교와 비시범학교 학생들의 통일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X2 독립성 검증과 평균차이 검증인 t-test를 실시하였다. 원래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척도(예,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되어있었는데, 분석에서는 이를 긍정(매우 그렇다, 그렇다)과 부정(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두 개의 응답으로 축소하여 통일교육시범학교와 비시범학교 사이에 응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차이

본 연구는 통일교육시범 중학교 3학년 10개 학급과 비시범중학교 3학년 10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 376명 중 1명을 제외한 375명의 자료와, 비시범학교 학생 335명 중 불성실 응답자 5명을 제외한 33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통일교육시범중학교 학생들과 비시범학교 학생들의 통일인식의 차이 및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차이를 고려하였다. 성별[X2(1)=3.214, N.S], 성적[X2(4)=5.802, N.S], 주관적 정치성향[X2(2)=1.171, N.S], 부모의 소득 수준[X2(2)=3.836, N.S]이 통일교육시범학교와 비시범학교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차이가 아닌 통일교육시범학교와 비시범학교의 통일교육의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 연구 참여 학생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학교구분	비시범학교	330	46.8
	시범학교	375	53.2
	합계	705	100
성별	남	373	53
	여	331	47
	합계	704	100
성적	상위권	92	13.3
	중상위권	188	27.1
	중위권	237	34.1
	중하위권	148	21.3
	하위권	29	4.2
	합계	694	100
정치성향	보수	85	12.6
	중도	449	66.3
	진보	143	21.1
	합계	677	100
부모님 소득수준	상	94	13.6
	중	556	80.7
	하	39	5.7
	합계	689	100

<표 4>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차이(%)

	구분		전체	X2
	비시범학교	시범학교		
전체	330(48.7)	347(51.3)	677(100)	
성별	남	157(47.6)	189(54.5)	3.214
	여	173(52.4)	158(45.5)	

	상위권	30(9.2)	50(14.6)	80(12)	
	중상위권	94(28.9)	82(23.9)	176(26.3)	
성적	중위권	113(34.8)	123(35.9)	236(35.3)	5.802
	중하위권	74(22.8)	73(21.3)	147(22)	
	하위권	14(4.3)	15(4.4)	29(4.3)	
정치 성향	보수	42(13.1)	37(11.2)	79(12.1)	1.171
	중도	206(64.4)	226(68.3)	432(66.4)	
	진보	72(22.5)	68(20.5)	140(21.5)	
부모 소득 수준	상	31(9.5)	45(13.4)	76(11.5)	3.836
	중	279(85.6)	269(79.8)	548(82.7)	
	하	16(4.9)	23(6.8)	39(5.9)	

### 3. 연구결과 및 분석

#### 1) 북한·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

북한·통일과 관련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얻고 있느냐는 물음에 전체 40.8%가 ‘학교수업’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했고 ‘TV·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학생도 37%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은 49.8%가 ‘학교수업’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0.6%가 ‘TV·라디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43.7%가 ‘TV·라디오’를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1.3%가 ‘학교수업’이라고 응답하여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X2(4)=23.812, p <.001]

<표 5> 북한·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

	학교수업	TV·라디오	신문	잡지·일반서적	인터넷 매체	X2
비시범학교	99(31.3)	138(43.7)	19(6)	2(6)	58(18.4)	23.812**
시범학교	166(49.8)	102(30.6)	14(4.2)	3(9)	48(14.4)	*
전체	265(40.8)	240(37)	33(5.1)	5(8)	106(16.3)	

\*p<.05, \*\*p<.01, \*\*\*p<.001

#### 2)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방식

현재 학교의 북한·통일 관련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강의식 수업’,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 ‘토론·토의식 수업’, ‘현장견학·체험학습’, ‘탈북자 초청 강연’의 5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5가지 세부 항목 모두에 대해 자주 수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자주 수업한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많았다. 특히 ‘강의식 수업’과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을 제외한 ‘토론·토의식 수업’, ‘현장견학·체험학습’, ‘탈북자 초청 강연’에 대해서는 자주 수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자주 수업한다는 응답보다 5배 이상의 차이로 더 많았다.

‘강의식 수업’에 대해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은 50%가 자주 수업 한다고 응답했고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24.1%가 자주 수업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비시범학교에 비해 북한·통일과 관련한 강의식 수업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X2(1)=47.241, p <.001]

<표 6>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방식- 강의식 수업(%)

	매우 자주함	자주함	별로 안함	전혀 안함	종합		X2
					자주함	안함	
비시범 학교	8(2.5)	69(21.6)	168(52.5)	75(23.4)	77(24.1)	243(75.9)	47.241***

시범 학교	16(4.7)	153(45.3)	149(44.1)	20(5.9)	169(50)	169(50)
전체	24(3.6)	222(33.7)	317(48.2)	95(14.4)	246(37.4)	412(62.6)

\*p<.05, \*\*p<.01, \*\*\*p<.001

‘시청각자료 활용 수업’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 57.1%가 자주 수업 한다고 응답하였고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29.6%가 자주 수업 한다고 응답하여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비시범학교에 비해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X2(1)=50.5, p <.001]

<표 7>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방식-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

	매우 자주함	자주함	별로 안함	전혀 안함	종합		X2
					자주함	자주 안함	
비시범 학교	6(1.9)	88(27.7)	156(49.1)	68(21.4)	94(29.6)	224(70.4)	50.5***
시범 학교	26(7.7)	167(49.4)	127(37.6)	18(5.3)	193(57.1)	145(42.9)	
전체	32(4.9)	255(38.9)	283(43.1)	86(13.1)	287(43.8)	369(56.3)	

\*p<.05, \*\*p<.01, \*\*\*p<.001

‘토론·토의식 수업’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 15.4%가 자주 수업 한다고 응답하였고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9.4%가 자주 수업 한다고 응답하여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비시범학교에 비해 통일교육에 대한 토론·토의식 수업을 다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X2(1)=5.372, p <.05]

<표 8>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방식- 토론·토의식 수업(%)

	매우 자주함	자주함	별로 안함	전혀 안함	종합		X2
					자주함	자주 안함	
비시범 학교	3(.9)	27(8.5)	163(51.3)	125(39.3)	30(9.4)	288(90.6)	5.372*
시범 학교	11(3.3)	41(12.2)	202(59.9)	83(24.6)	52(15.4)	285(84.6)	
전체	14(2.1)	68(10.4)	365(55.7)	208(31.8)	82(12.5)	573(87.5)	

\*p<.05, \*\*p<.01, \*\*\*p<.001

또한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은 24.3%,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7.5%가 ‘현장견학·체험학습’을 자주 한다고 응답하였어 비시범학교에 비해 통일교육시범학교가 3배 이상 통일교육에 대한 현장견학이나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X2(1)=34.177, p <.001]

<표 9>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방식- 현장견학·체험학습(%)

	매우 자주함	자주함	별로 안함	전혀 안함	종합		X2
					자주함	자주 안함	
비시범 학교	2(0.6)	22(6.9)	145(45.5)	150(47.0)	24(7.5)	295(92.5)	34.177***
시범 학교	15(4.5)	67(19.9)	172(51.0)	83(24.6)	82(24.3)	255(75.7)	
전체	17(2.6)	89(13.6)	317(48.3)	233(35.5)	106(16.2)	550(83.8)	

\*p<.05, \*\*p<.01, \*\*\*p<.001

‘탈북자 초청 강연’ 항목에서는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의 46.9%가 자주 수업한다고 응답하여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7.2%

만이 자주 수업 한다고 응답하여 통일교육시범학교에서 ‘탈북자 초청 강연’을 통한 통일교육이 훨씬 많이 이루어졌음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X2(1)=129.113, p <.001]

<표 10>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방식- 탈북자 초청강연(%)

	매우 자주함	자주함	별로 안함	전혀 안함	종합		X2
					자주함	자주 안함	
비시범 학교	2(6)	21(6.6)	130(40.8)	166(52)	23(7.2)	296(92.8)	129.113***
시범 학교	20(5.9)	138(40.9)	157(46.6)	22(6.5)	158(46.9)	179(53.1)	
전체	22(3.4)	159(24.2)	287(43.8)	188(28.7)	181(27.6)	475(72.4)	

\*p<.05, \*\*p<.01, \*\*\*p<.001

3)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전체 6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은 비교적 학교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통일교육시범학교는 65%가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73.1%가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X2(1)=4.886, p <.05]

<표 11>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매우 필요	필요	불필요	매우 불필요	종합		X2
					필요	불필요	
비시범 학교	40(12.7)	191(60.4)	70(22.2)	15(4.7)	231(73.1)	85(26.9)	4.886*
시범학교	32(9.8)	180(55.2)	88(27)	26(8)	212(65)	114(35)	

전체	72(11.2)	371(57.8)	158(24.6)	41(6.4)	443(69)	199(31)
----	----------	-----------	-----------	---------	---------	---------

\*p<.05, \*\*p<.01, \*\*\*p<.001

4) 현재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통일 관련 교육이 얼마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묻고, ‘학습자료 및 교재’, ‘수업의 방법’, ‘수업시간의 정도’, ‘선생님의 전문성’으로 세분하여 그 만족도를 물어보았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통일 관련 교육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은 55.6%가 유익하다고 응답했고 44.4%는 유익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42.2%가 유익하다고 응답했고 57.8%가 유익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비시범학교 학생들에 비해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해 더 유익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X2(1)=11.67, p <.001]

<표 12> 현재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매우 유익함	유익함	유익하지 않음	전혀 유익하지 않음	종합		X2
					유익함	유익하지 않음	
비시범 학교	3(0.9)	133(41.3)	161(50)	25(7.8)	136(42.2)	186(57.8)	11.67*
시범 학교	7(2.1)	176(53.5)	119(36.2)	27(8.2)	183(55.6)	146(44.4)	
전체	10(1.5)	309(47.5)	280(43)	52(8)	319(49)	332(51)	

\*p<.05, \*\*p<.01, \*\*\*p<.001

현재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학습 자료·교재’, ‘수업 방법’, ‘수업 시간’, ‘교사의 전문성’으로 나누고,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료·교재’에 대해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은 평균 2.4794가 만족한다고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75425이며, 일반학교 학생들은 평균 2.3406가 만족한다고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71234이다. 두 학교 모두 학교통일교육에 있어서 ‘학습자료 및 교재’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t통계값은 2.427이고 유의확률은 .015로서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의 방법’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5382이고 표준편차는 .77289이며, 일반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387이고 표준편차는 .73419로 ‘수업 방법’에 대한 만족도 역시 두 학교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또한 t통계값은 2.565이고 유의확률은 .011로서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시간의 정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5221이고 표준편차는 .78932이며, 일반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3511이고 표준편차는 .73261로 ‘수업시간의 정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두 학교 학생들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또한 t통계값은 2.876이고 유의확률은 .004로서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는 물음에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5917이고 표준편차는 .78875이며, 일반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3813이고 표준편차는 .76664로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역시 두 학교 학생들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통계값은 3.468이고

유의확률은 .001로서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재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5가지 세부항목 모두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만족도가 높으므로 나타난 것은 통일교육시범학교 선정·운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13> 학습자료·교재, 수업 방법, 수업 시간, 교사의 전문성 평가(t-test)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학습자료·교재	일반학교	320	2.3406	.71234	2.427*
	시범학교	340	2.4794	.75425	
수업의 방법	일반학교	320	2.3875	.73419	2.565*
	시범학교	340	2.5382	.77289	
수업시간의 정도	일반학교	319	2.3511	.73261	2.876**
	시범학교	339	2.5221	.78932	
선생님의 전문성	일반학교	320	2.3813	.76664	3.468***
	시범학교	338	2.5917	.78875	

\*p<.05, \*\*p<.01, \*\*\*p<.001

### 5) 학교통일교육의 효과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의 북한·통일 관련 교육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북한에 대한 이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차이에 대한 이해’, ‘통일과 관련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통일시범학교는 69.6%, 비시범학교는 65.1%로서 두 학교 학생들 모두 통일의 필요

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학생들보다 더 많았다. 또한 이 물음에 대한 통일교육시범학교와 비시범학교 학생들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X2(1)=1.528, N.S.]

<표 14> 학교통일교육의 효과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총합		X2
					도움됨	도움안됨	
비시범학교	24(7.5)	183(57.5)	83(26.1)	28(8.8)	207(65.1)	111(34.9)	1.528
시범학교	31(9.1)	205(60.5)	79(23.3)	24(7.1)	236(69.6)	103(30.4)	
전체	55(8.4)	388(59.1)	162(24.7)	52(7.9)	443(67.4)	214(32.6)	

\*p<.05, \*\*p<.01, \*\*\*p<.001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통일교육시범학교가 69.7%, 비시범학교가 62.1%로 두 학교 모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이 ‘북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더 많았다. 또한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비시범학교에 비해 ‘북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더 많았고, 이것은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4.278, p <.05]

<표 15> 학교통일교육의 효과 - 북한에 대한 이해(%)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총합		X2
					도움됨	도움안됨	
비시범학교	20(6.3)	178(55.8)	90(28.2)	31(9.7)	198(62.1)	121(37.9)	4.278*
시범학교	30(8.8)	207(60.9)	78(22.9)	25(7.4)	237(69.7)	103(30.3)	
전체	50(7.6)	385(58.4)	168(25.5)	56(8.5)	435(66.0)	224(34.0)	

\*p<.05, \*\*p<.01, \*\*\*p<.001

교 학생들이 57.6%,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48.6%로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이 비시범학교 학생들보다 더 많은 수가 ‘정부의 통일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는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5.424, p <.05]

<표 16> 학교통일교육의 효과-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총합		X2
					도움됨	도움안됨	
비시범학교	13(4.1)	142(44.5)	126(39.5)	38(11.9)	155(48.6)	164(51.4)	5.424
시범학교	25(7.4)	171(50.3)	113(33.2)	31(9.1)	196(57.6)	144(42.4)	
전체	38(5.8)	313(47.5)	239(36.3)	69(10.5)	351(53.3)	308(46.7)	

\*p<.05, \*\*p<.01, \*\*\*p<.001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이 66.5%, 비시범학교 학생들이 57.7%로 이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이 비시범학교 학생들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고,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X2(1)=5.41, p <.05]

<표 17> 학교통일교육의 효과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 이해(%)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총합		X2
					도움됨	도움안됨	
비시범학교	26(8.2)	158(49.5)	101(31.7)	34(10.7)	184(57.7)	135(42.3)	5.41*
시범학교	44(12.9)	182(53.5)	85(25.0)	29(8.5)	226(66.5)	114(33.5)	
전체	70(10.6)	340(51.6)	186(28.2)	63(9.6)	410(62.2)	249(37.8)	

\*p<.05, \*\*p<.01, \*\*\*p<.001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통일교육시범학

그리고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통일과 관련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이 54.9%, 비시범학교 학생들이 46.7%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도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비시범학교보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과 관련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더 많았고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X2(1)=1.528, p <.05]

<표 18> 학교통일교육의 효과 - 통일과 관련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종합		X2
					도움됨	도움안됨	
비시범학교	9(2.8)	140(43.9)	125(39.2)	45(14.1)	149(46.7)	170(53.3)	4.377*
시범학교	30(8.8)	156(46.0)	122(36.0)	31(9.1)	186(54.9)	153(45.1)	
전체	39(5.9)	296(45.0)	247(37.5)	76(11.6)	335(50.9)	323(49.1)	

\*p<.05, \*\*p<.01, \*\*\*p<.001

이처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북한에 대한 이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차이에 대한 이해', '통일과 관련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에서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비시범학교보다 현재의 학교통일교육이 위 항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더 많았고, 이 중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서 두 학교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비시범학교에서보다 통일교육시범학교에서 통일교육의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통일교육 방법에 대한 평가

통일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통일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보급', '통일 논의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

의 실시', '금강산 방문 등 북한 현지 방문 기회 제공', '탈북 주민이나 탈북 청소년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 제공'과 같은 정책이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통일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나 자료의 보급'이 통일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58%,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나타났다.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은 57.9%,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58.2%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두 학교 학생들 간 유의미한 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X2(1)=.005, N.S.]

<표 19>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통일교육 방법- 다양한 정보·자료의 보급(%)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종합		X2
					도움됨	도움안됨	
비시범학교	39(12)	150(46.2)	109(33.5)	27(8.3)	189(58.2)	136(41.8)	.005
시범학교	24(7)	174(50.9)	119(34.8)	25(7.3)	198(57.9)	144(42.1)	
전체	63(9.4)	324(48.6)	228(34.2)	52(7.8)	387(58)	280(42)	

\*p<.05, \*\*p<.01, \*\*\*p<.001

'통일에 관한 논의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 53.5%,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46.5%로 나타났다.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은 50.3%,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56.9%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두 학교 학생들 간 유의미한 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X2(1)=2.945, N.S.]

<표 20>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통일교육 방법-통일 논의에 참여기회 제공(%)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종합		X2
					도움됨	도움안됨	
비시범학교	41(12.6)	144(44.3)	109(33.5)	31(9.5)	185(56.9)	140(43.1)	2.945

시범학교	34(9.9)	138(40.4)	139(40.6)	31(9.1)	172(50.3)	170(49.7)
전체	75(11.2)	282(42.3)	248(37.2)	62(9.3)	357(53.5)	310(46.5)

\*p<.05, \*\*p<.01, \*\*\*p<.001

또한 ‘청소년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68.4%,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31.6%로 약 2배 정도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생들은 기존의 통일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통일교육 방안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과 비시범학교 학생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X2(1)=1.626, N.S.]

<표 21>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통일교육 방법-새로운 통일교육 방안 마련(%)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종합		X2
					도움됨	도움안됨	
비시범학교	60(18.5)	170(52.3)	73(22.5)	22(6.8)	230(70.8)	95(29.2)	1.626
시범학교	63(18.4)	164(47.8)	88(25.7)	28(8.2)	227(66.2)	116(33.8)	
전체	123(18.4)	334(50)	161(24.1)	50(7.5)	457(68.4)	211(31.6)	

\*p<.05, \*\*p<.01, \*\*\*p<.001

‘북한현지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69.1%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30.9%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다수의 학생들은 북한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통일교육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과 비시범학교 학생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X2(1)=.538, N.S.]

<표 22>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통일교육 방법-북한현지 방문 기회 제공(%)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종합		X2
					도움됨	도움안됨	
비시범학교	71(21.8)	158(48.6)	75(23.1)	21(6.5)	229(70.5)	96(29.5)	.538
시범학교	92(26.9)	140(40.9)	85(24.9)	25(7.3)	232(67.8)	110(32.2)	
전체	163(24.4)	298(44.7)	160(24)	46(6.9)	461(69.1)	206(30.9)	

\*p<.05, \*\*p<.01, \*\*\*p<.001

그리고 ‘탈북주민이나 탈북청소년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65.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34.1%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통일교육시범학교는 66.3%의 학생이, 비시범학교는 65.5%의 학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통일시범학교 학생들과 비시범학교 학생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X2(1)=.041, N.S.]

<표 23>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통일교육 방법-탈북주민과의 만남(%)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종합		X2
					도움됨	도움안됨	
비시범학교	71(21.8)	142(43.7)	88(27.1)	24(7.4)	213(65.5)	112(34.5)	.041
시범학교	90(26.2)	138(40.1)	88(25.6)	28(8.1)	228(66.3)	116(33.7)	
전체	161(24.1)	280(41.9)	176(26.3)	52(7.8)	441(65.9)	228(34.1)	

\*p<.05, \*\*p<.01, \*\*\*p<.001

이처럼 5개 항목 모두 통일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 효과적인 학교통일교육 방식

학생들은 북한·통일 관련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강의식 수업’,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 ‘토론·토의식 수업’, ‘현장견학·체험학습’, ‘탈북자 초청 강연’의 5개 항목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지 물어보고, 통일교육시범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강의식 수업’의 효과에 대해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4899이고 표준편차는 .79142이며, 일반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4438이고 표준편차는 .79142이다. t통계값은 .756이고 유의확률은 .45로서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른 ‘강의식 수업’의 효과에 대한 의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의 효과에 대한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562이고 표준편차는 .82836이며, 일반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5441이고 표준편차는 .82568이다. t통계값은 .281이고 유의확률은 .779로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른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의 효과에 대한 의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론·토의식 수업’의 효과에 대해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2968이고 표준편차는 .79454이며, 일반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4281이고 표준편차는 .80653이다. t통계값은 2.129이고 유의확률은 .034로 통일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토론·토의식 수업’의 효과에 대한 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장견학·체험학습’의 효과에 대해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8098이고 표준편차는 .90829이며, 일반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9024이고 표준편차는 .88976이다. t통계값은 1.338이고 유의확률은 .181로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현장견학·체험학습’의 효과에 대한 의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북자 초청 강연’의 효과에 대해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86

46이고 표준편차는 .86123이며, 일반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2.8201이고 표준편차는 .90933이다. t통계값은 .652이고 유의확률은 .515로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라 ‘탈북자 초청 강연’의 효과에 대한 의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4>. 효과적인 학교통일교육 방식(t-test)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강의식 수업	일반학교	329	2.4438	.79482	.756
	시범학교	347	2.4899	.79142	
시청각자료 활용 수업	일반학교	329	2.5441	.82568	.281
	시범학교	347	2.5620	.82836	
토론·토의식 수업	일반학교	327	2.4281	.80653	2.129*
	시범학교	347	2.2968	.79454	
현장견학·체험학습	일반학교	328	2.9024	.88976	1.338
	시범학교	347	2.8098	.90829	
탈북자 초청 강연	일반학교	328	2.8201	.90933	.652
	시범학교	347	2.8646	.86123	

\*p<.05, \*\*p<.01, \*\*\*p<.001

8) 북한·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체

학생들에게 TV나 SNS(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매체에서 북한·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북한·통일 문제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TV’는 전체 74.1%가 북한·통일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19.7%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6.2%는 본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X2(2)=3.111, N.S.]

<표 25> 북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체- TV(%)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 안됨	전혀 도움안됨	본적 없음	종합			X2
						도움됨	도움 안됨	본적 없음	
비시범 학교	59 (18)	194 (59.1)	46 (14)	11 (3.4)	18 (5.5)	253 (77.1)	57 (17.4)	18 (5.5)	3.111
시범 학교	61 (17.6)	186 (53.6)	60 (17.3)	16 (4.6)	24 (6.9)	247 (71.2)	76 (21.9)	24 (6.9)	
전체	120 (17.8)	380 (56.3)	106 (15.7)	27 (4)	42 (6.2)	500 (74.1)	133 (19.7)	42 (6.2)	

\*p<.05, \*\*p<.01, \*\*\*p<.001

‘SNS’는 전체 54.7%가 북한· 통일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34.7%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10.7%는 본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X2(2) = .024, N.S.]

<표 26> 북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체- SNS(%)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 안됨	전혀 도움안됨	본적없 음	종합			X2
						도움됨	도움 안됨	본적 없음	
비시범 학교	35 (10.6)	144 (43.8)	81 (24.6)	34 (10.3)	35 (10.6)	179 (54.4)	115 (35)	35 (10.6)	.024
시범 학교	41 (11.8)	149 (43.1)	91 (26.3)	28 (8.1)	37 (10.7)	190 (54.9)	119 (34.4)	37 (10.7)	
전체	76 (11.3)	293 (43.4)	172 (25.5)	62 (9.2)	72 (10.7)	369 (54.7)	234 (34.7)	72 (10.7)	

\*p<.05, \*\*p<.01, \*\*\*p<.001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북한관련기사’는 전체 63.4%가 북한· 통일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28.3%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8.3%는 본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X2(2) = .251, N.S.]

<표 27> 북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체- 인터넷 포털사이트(%)

	매우 도움됨	도움됨	도움 안됨	전혀 도움안됨	본적 없음	종합			X2
						도움됨	도움 안됨	본적 없음	
비시범 학교	46 (14)	161 (49.1)	75 (22.9)	17 (5.2)	29 (8.8)	207 (63.1)	92 (28)	29 (8.8)	.251
시범 학교	49 (14.1)	172 (49.6)	81 (23.3)	18 (5.2)	27 (7.8)	221 (63.7)	99 (28.5)	27 (7.8)	
전체	95 (14.1)	333 (49.3)	156 (23.1)	35 (5.2)	56 (8.3)	428 (63.4)	191 (28.3)	56 (8.3)	

\*p<.05, \*\*p<.01, \*\*\*p<.001

‘TV’, ‘SNS’,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두 북한· 통일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이러한 매체를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9) 학교 외의 다른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

학생들에게 학교 외의 다른 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북한· 통일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71.1%가 학교 외의 다른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 청소년 단체 10.1%, 비시범시민단체 3.3%, 정부공공기관 7.1%, 기타 8.4%로 전체 약 30%의 학생들은 학교 외의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통일교육을 받아본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은 71.3%,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70.9%가 학교 외의 다른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통일교육시범학교 여부에 따른 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X2(4) = 6.322, N.S.]

<표 28> 학교 외의 다른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

	청소년 단체	일반 시민단체	정부·공공기관	기타	없다	X2
비시범학교	31(9.7)	13(4.1)	17(5.3)	32(10)	227(70.9)	6.322
시범학교	34(10.5)	8(2.5)	29(9)	22(6.8)	231(71.3)	
전체	65(10.1)	21(3.3)	46(7.1)	54(8.4)	458(71.1)	

\*p<.05, \*\*p<.01, \*\*\*p<.001

#### IV. 결론

이 논문은 경기도에 파주에 소재한 통일교육시범학교와 비시범학교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통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비시범학교 학생들은 ‘TV·라디오’를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보다 비시범학교 학생들이 그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시범학교 학생들에 비해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해 더 유익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비시범학교에 비해 통일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학습자료·교재’, ‘수업 방법’, ‘수업 시간’, ‘선생님의 전문성’의 5가지 세부항목에 대해 모두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이 비시범학교 학생들보다 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북한·통일 관련 교육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북한에 대한 이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차이에 대한 이해’, ‘통일과 관련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통일교육시범학교 학생들이 비시범학교 학생들보다 현재의 학교통일교육은 위 5개 항목에 도움이 된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다.

통일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통일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보급’, ‘통일 논의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실시’, ‘금강산 방문 등 북한 현지 방문 기회 제공’, ‘탈북 주민이나 탈북 청소년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 제공’의 5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5개 항목 모두 통일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또한 ‘TV’, ‘SNS’,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같은 매체는 모두 북한·통일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학교 외의 다른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 약 30%의 학생들이 학교 외의 다른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비시범학교에 비해 현재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고, 통일교육의 방식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으며, 통일교육이 북한 및 통일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통일문화 형성 및 바람직한 통일관 형성이라는 시범학교 운영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 된다. 현재 시범적으로 소수의 학교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확대함에 있어

각 급 학교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범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재기, “지역사회 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17집 3호, 2012.
- , “대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시민윤리학회』, 제26집 2호, 2013.
- 박광기, “새로운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성 제고 : 통일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시민교육연구』, 제39권 3호, 2007.
- 박명규 외, 『2012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 박찬석, “도덕·사회 교과서 분석을 통해 본 통일교육의 실제와 개선.” 『윤리교육연구』, 2009.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통일의식조사』, 2012.
- 차우규,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 : 교과과정의 통일교육 현황과 과제』,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 통일교육협의회, 『2013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2013.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13.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통일교육지침서』, 2013.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통일백서』, 2013.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학교통일교육지도서』, 2013.
- 통일부,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 정책』, 통일부, 2012.
- 금릉중,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2013.
- 금릉중,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2013.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Unification Consciousness of the Korea Unification Education Model and Non-Model Middle Schools

Jung, Ji-Yun(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im, Jai-Gi(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ove all, the view on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for teenagers who will be the leaders of a unified Korea is very important. According to the '2013 Korean unification survey of teenagers', lots of teenagers still have bad impressions of North Korea. The 2012 survey, from a unification and peace research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so shows the younger generation have lower consciousness about unification. This research tells us unification education is significant and should be reinforced, especially in school, where the best access to teenagers is.

Therefore, focusing on management of the unification model school, rather than extension and strengthening of unification education in regular schools, this study tried to find what different points of view about Korean unification students have between the unification model school and regular school.

In terms of percep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the model school students receive lecture instruction, audio-visual education, discussion courses, field study and North Korean defector guest lectures about North Korea and unification many times, compared with the non-model school students. The survey suggests that these teaching methods are helpful to unification education.

Therefor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odel school students and the non-model school students about awareness of unification, attitude towards North Korea and percep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That is, the model school students are more widely informed about North Korean unification than the non-model school students. Additionally, the model school students more often feel the need for unification than the non-model school students. Operation of the model school for unification education paid off by promoting proper unification perception.

Keywords :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Korea Unification Consciousness, Korea Unification Education Model School, Non-model School

투고일: 2014년 6월 29일, 심사일: 2014년 7월 14일,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30일